

2009. 1. 5

세계도시동향

<글로벌 경기침체 특집>



특집

글로벌 경기침체와
세계 대도시의 대응전략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전 세계가 우울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도시들은 2009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세계도시동향'에서 짚어봤습니다.

목 차

<북미>

뉴욕

1. 기간산업 육성으로 고용 창출 기반 마련
- #### 필라델피아
2. 시민 서비스와 공공안전 부문만큼은 예산 삭감 No!

<남미>

상파울루

3. 세금감면과 정부 은행 대출로 기업 살리기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州

4. 주정부 은행 통해 기업 대출 확대

브라질

5. 세수입 감소해도 세금 감면혜택으로 소비촉진 기대

<유럽>

런던

6. 보행자가 '왕'...도심 쇼핑가 차량 통제해 소매업체 이용 활성화
7. 유례없는 주민세 동결
8. 경기침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담반 구성
9. 비즈니스 활성화 위해 2300만 파운드 추가 투자
10. 낙후지역의 중소규모 사업 우선 지원
11. 30억 파운드 규모의 '경제회복실행계획' 실시

파리

12. 경기침체 극복 위한 고용 대책방안
13. 구직자 창업 지원방안 마련
14. 고용과 사회 참여에 대한 구청별 계획 확대
15. 중소기업 대출 지원 10배 확대

영국

16. 경기침체를 친환경건설산업 발전의 기회로 전환

독일

17. 500억 유로 규모의 15가지 경기부양책 발표

목 차

벨기에

18. 私경제를 위한 경기부양 프로그램

스페인

19. 일자리 창출 위해 110억 유로의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발표

이탈리아

20. EU의 지원금을 받아 경기부양 프로그램 의결

네덜란드

21. 기업에는 세금혜택,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근로자에게 보상

오스트리아

22. 중산층 지원하는 경기부양 프로그램

폴란드

23. '발전과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부양 계획

헝가리

24. 이제 겨우 국가부도 위기 벗어났지만 경기부양에 적극 노력

<아시아>

도쿄

25. '새로운 경제 대책(생활 대책)' 발표

26. 비정규직 30대를 정규직으로... '넥스트 잡 테라스' 오픈

요코하마

27. 긴급 경제대책 수립

북경

28. 내수 확대 위해 통관절차 융통성 있게 처리

29. 중소기업 창업 투자지원 기금 마련

상하이

30. 2009년 토지세 폐지

31. 통관절차 간소화 20항목 발표

32. 민생안정을 우선 고려한 1000억 위안 투자 계획

33. '3개년 취업지원계획'으로 실업 극복 의지

■ 뉴욕

1. 기간산업 육성으로 고용 창출 기반 마련

○ 뉴욕市는 현재의 경기침체가 뉴욕市를 좀더 강하게 만들고 도시의 기반구조를 재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JFK 공항과 허드슨 철도 보수 등 기간산업을 통한 고용 창출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야구장과 주차장을 겸비한 2층 규모의 ‘피어 40’ 건물은 현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30억 달러에 달하는 리노베이션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조달되지 않고 있음.
- 주차시설을 확충한 복합공간을 만들려는 계획은 경기장을 보존하려는 일부 지역 커뮤니티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음.
- 市는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피어 40’의 기존 기능을 보존하면서 개선 공사에 따른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 대체 에너지 및 기존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공립학교나 시립 주택단지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물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와 기술로 재정비할 계획임.
- 뉴욕市 교육부는 2008년 환경친화적인 학교를 건립하면서 기존 기숙사 시설을 재건축해 5억 달러 가량의 경비를 절감함.

(weblogs.amny.com/entertainment/urbanite/blog/2008/12/
cover_story_a_new_deal_for_new.html)

■ 필라델피아

2. 시민 서비스와 공공안전 부문만큼은 예산 삭감 No!

○ 필라델피아市는 2008년 11월 ‘경제위기에 대한 필라델피아의 대응책’(City of Philadelphia’s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을 발표함.

- 필라델피아市는 2008년 회계연도 시작 당시 1억 1900만 달러의 재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약 1억 800만 달러의 재정 적자에 직면해 있음.
 - 앞으로 5년간 약 10억 달러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실정임.
- 현재의 경제위기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많은 예산을 삭감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시민 서비스와 공공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아끼지 않을 예정임.
 - 경찰, 소방, 구급방재 등 공공안전 부문에서는 인원 조정을 하지 않음.
 - 공공도서관의 경우, 활용이 미비한 11개소를 폐쇄하는 대신 나머지 도서관에는 재정지원을 지속
 - 레크리에이션 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
 - 관내 하천 정비와 가로 정비 예산 유지
- 필라델피아市는 경제위기 대응책 홍보와 주민참여를 위한 미팅을 2008년 12월 각 지역을 돌며 실시함.
 - 市 전역의 7개 장소에서 열린 미팅에서 市 대응책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한편, 시민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市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 시민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민원을 받아들여 시민과 정부가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을 하고자 함.

(www.phila.gov/pdfs/BUDGSPEECH_11608.pdf)

(www.phila.gov/pdfs/Rebalancing_Plan_FY09_FY13_Five_Yr_Plan.pdf)

남 미

■ 상과울루

3. 세금감면과 정부 은행 대출로 기업 살리기

- 상과울루市는 기업에 대한 상품용역유통세 감면정책을 실시하고, 市정부 은행에서 기계류와 차량부품 업체에 12억 해알을 대출해줘 기업 살리기에 나섬.

- 2008년 12월 상품용역유통세를 2009년 1월과 2월에 걸쳐 50%씩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또한 2008년 12월 31일과 2009년 6월 30일자 상품용역유통세 납부 시, 세율은 기존 18%에서 12%로 인하하기로 함.
- 상파울루市는 중소기업체가 상품용역유통세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이미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3억 5000만 헤알(약 1750억원)의 세금이 반환될 예정임.
 - 비영리 기관과 건물에 대해 상품과 서비스 구입으로 납부된 상품용역유통세의 3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함.
 - 전기, 수도, 전화비를 상품용역유통세 대출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음.

(www1.folha.uol.com.br/folha/dinheiro/ult91u478765.shtml)

■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州

4. 주정부 은행 통해 기업 대출 확대

- 미나스제라이스州는 주정부 은행을 통해 기업 대출을 확대함.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4억 6000만 헤알(약 2300억 원)의 대출자금을 푸는 것은 물론, 세금징수 기간을 연장함.
- 미나스제라이스州는 위기극복을 위한 6개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 3개는 세금감면에 관한 것이며, 다른 3개는 대출에 관한 것임.
 - 이 중에는 주정부 은행이 자체자금으로 최고 2억 헤알(약 1000억 원)까지 장비구입 대출을 허가해, 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투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에 대한 세무혜택은 상품용역유통세 납세기간을 연장하고 분할 납세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임. 이를 통해 약 9만개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됨.

(www1.folha.uol.com.br/folha/dinheiro/ult91u466696.shtml)

■ 브라질

5. 세수입 감소해도 세금 감면혜택으로 소비촉진 기대

- 브라질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한 방편으로 소비 촉진 정책을 발표함. 여기에는 개인소득세, 할부대출과 특별수표에 대한 금융세(IOF) 인하가 포함돼 있음.
- 2009년 브라질 정부의 세수입은 84억 헤알(약 4조 2000억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나, 정부는 이 금액이 소비활성화를 위해 경제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변경된 개인소득세는 2009년 1월부터 실시되며, 브라질 정부는 소득세 인하로 49억 헤알(약 2조 4500억 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게 됨.
- 금융세는 연이율 3%에서 1.5%로 줄어듦. 이로써 차량이나 다른 전자제품 등을 구입할 때 특별수표를 통한 할부 시 금리가 줄어듦.
 - 금융세 인하로 2009년 25억 헤알(약 1조 2500억 원)정도의 세수가 감소함.

(www.estadao.com.br/economia/not_eco292506,0.htm)

유 럽

■ 런 던

6. 보행자가 ‘왕’...도심 쇼핑가 차량 통제해 소매업체 이용 활성화

- 런던시는 런던교통공사와 협력해 도심 상점가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음. 경기침체로 타격을 받고 있는 소매업체를 살리기 위해 런던 도심 쇼핑가에 ‘차 없는 날’ 제도를 시행함.
-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런던시의 대표적인 쇼핑거리를 12월 4일 토요일 하루종일 차량통행을 통제하고 보행자가 ‘왕’이 되는 날을 선포함. 다양한 공연과 불거리로 흥을 돋움.

- 런던교통공사는 차 없는 날에 맞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쇼핑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교통정보를 제공함.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0714.aspx)

7. 유례없는 주민세 동결

- 사상 최초로 런던市가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한 2009년 예산안을 수립해 발표함.

- 2000년 이후 도시 성장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등으로 런던市 주민세가 152% 인상돼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동결대책은 획기적임.

- 저소득층을 포함해 300만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됨.

- 이밖에 일선 행정서비스의 질은 유지하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 낭비예산 절감 등을 통해 1억 파운드를 감축한다는 계획도 포함됨.

- 특히 시청사 및 본청 조직 관련 예산 감축분이 700만 파운드로 할당돼 주목을 끌고 있음.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0119)

(www.london.gov.uk/gla/budget)

8. 경기침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담반 구성

- 런던市는 최근 경기침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각계 정치가, 사업가, 공공부문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함.

- 경기침체를 막고 상업활성화를 위해 비어 있는 상업용 사무공간의 소유자에게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임. 다음의 현안도 중점 논의함.

- 런던의 동서를 연결하는 크로스레일(Crossrail) 건설을 조속히 시행하고 기존의 지하철 시설을 재정비

- 소규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 온라인시스템 사용
- 고용과 직업교육을 위한 현장서비스(One-Stop Shop) 실시
- 세계도시로서 국제거래에 대한 세금혜택 부여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722)

9. 비즈니스 활성화 위해 2300만 파운드 추가 투자

○ 런던개발청은 경기침체를 막고,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2300만 파운드를 부가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함.

- 다양한 재정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함.
 - 프로그램 중에는 비즈니스 경기회복을 위한 세미나, 시장상황에 대한 런던 개발청의 홍보,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와 직업교육, 비즈니스 가이드 정보가 포함돼 있음.
- 런던개발청은 일자리와 직업교육을 돕고 현재의 경기침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2951)

10. 낙후지역의 중소규모 사업 우선 지원

○ 런던 템스게이트 지역 10곳에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함.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이 정부, 회사, 개발업자와 계약할 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것임.

-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동부런던 비즈니스 장소’(East London Business Place) 기관을 설립함.
 - 이 기관은 중소기업에 더 많은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일대일 면담, 직업교육, 바이어 소개 주선 등을 시행함.
- 최근 적게는 100파운드에서 크게는 100만 파운드의 계약이 성사됨.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2842)

11. 30억 파운드 규모의 ‘경제회복실행계획’ 실시

○ 런던시는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30억 파운드(약 6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실행계획’(Economic Recovery Action Plan)을 대런던위원회(Greater London Authority)와 관련 기관을 통해 실시할 예정임.

-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런던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집중 투자할 예정임.

· 재정의 60%는 비즈니스 향상, 경제여건 향상 등에 투자함.

- 주요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음.

· 비즈니스 향상에 2340만 파운드 투자

· 사업기회 제공에 180만 파운드 투자

· 관광과 레저, 방문 홍보에 100만 파운드 투자

· 대런던위원회(Greater London Authority) 발주 사업 수행 중소기업에 10일 일찍 대금 지급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0196)

■ 파 리

12. 경기침체 극복 위한 고용 대책방안

○ 파리시는 고용문제에 있어 모든 관련 기관을 결집해 ‘고용감시위원회’(Comité de vigilance pour l’emploi)를 설립할 계획임.

- 이 위원회 설립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고용의 집(Maison de l’Emploi), 상업회의소, 회사 CEO, 각 직업 전문 협회들, 사회 관련 단체가 참여함.

- 계약직 채용의 60%가 파리市 ‘고용포럼’(Le Forum Paris Pour L’emploi)에서 성사됨.
 - 이 포럼은 회사와 구직자 사이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어 주며, 특히 재취업에 있어 효과가 큼.
- 숙박업과 식당업 분야 등은 아직 전문 직업인이 부족해 구직 기회가 많은 편이므로, 다양한 직업교육을 제공해 신규 취업과 재취업에 대비하도록 독려함.
- 파리市는 사회 초년생이 취업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션 로컬’(Les Missions Locales)을 시행하고 있음.
 -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주거·건강·재정 문제 등에 대해 상담함.

(www.paris.fr/portail/Economie/Portal.lut)

13. 구직자 창업 지원방안 마련

- 파리市는 실직자와 무소득 수당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 구직자의 창업지원 방안을 마련함.
 - 한 달에 한 번 경제발전과 고용센터에서 창업지원 정보 상담창구를 오픈.
 - 상담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되며, 창업지원에 대한 설명(세금, 대출, 보증 등)과 시장조사 방법, 재무제표 작성법, 법률상담 등에 대해 알려줌.
 - 일반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경제발의협회(ADIE)에서 최고 1만 유로, 고용창출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는 파리 자주 기업협회(PIE)에서 최고 3만 유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파리 창업회(Paris Entreprendre)에서는 4만 5000유로, 창업용자사(PCE)에서는 최고 7000유로를 대출해 줌.

(www.paris.fr/portail/Economie/Portal.lut?page_id=8470&document_type_id=5&document_id=48942&portlet_id=19778)

14. 고용과 사회 참여에 대한 구청별 계획 확대

○ 파리시는 지역적으로 낙후된 18구와 19구에 대한 취업지원 계획인 고용과 사회 참여에 대한 구청별 계획을 발표함.

- 무소득 수당을 받는 사람이나 사회 초년생 혹은 연로한 재취업 희망자, 예술가, 외국인 여성이나 미혼모·미혼부가 해당됨.

· 개별적으로 관련 기관에 등록하고 상담을 받아 필요한 교육을 받음.

· 매년 1400여 명의 사람이 혜택을 받아왔음.

· 파리 18구와 19구에 이어 10·11·12·20구에 대한 계획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

(www.paris.fr/portail/Economie/Portal.lut?page_id=8477&document_type_id=5&document_id=49512&portlet_id=19798)

15. 중소기업 대출 지원 10배 확대

○ 파리시는 이미 중소기업 재정지원 분담금으로 무이자 신용대부나 연대융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여기에 중소기업 창업 및 발전 지원기관이 보증을 서주는 'Paris Finance Plus'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을 돕고 있음.

- 이 기관은 전체 대출금의 70%를 보증해주며, 보증 총액은 각 경우에 따라 총액 35만 7000유로에 달함.

- 이 기관은 사업을 확장해, 중소기업 건물의 환경계획에도 관여하고 있음.

· 환경계획은 에너지 소비량과 가스 소비를 25% 줄이고, 2020년에는 2004년도 대비 30%를 더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파리시는 환경계획과 관련해 각 주거 및 사무용 건물에 수소풍선을 띄워 에너지 소비수치를 알리고 있음.

(www.paris.fr/portail/Economie/Portal.lut?page_id=6990&document_type_id=5&document_id=21089&portlet_id=16051)

■영 국

16. 경기침체를 친환경건설산업 발전의 기회로 전환

- 영국은 경기침체로 건설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으나, 탄소 무배출 건축물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축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영국 그린빌딩협의회(UK Green Building Council)가 실시한 업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가 지속가능 건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낙관함.
 - 18% 정도는 경기침체로 친환경 건축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응답함.
 - 시장상황을 낙관하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건축·건설이 기후변화 문제와 결합되면서 전 세계적인 정책과제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임.
 - 이처럼 성장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친환경 기술 및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공감대가 친환경 건축업체 사이에 형성됐음.
 - 영국 정부는 2016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탄소 무배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친환경 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함.
 - 친환경 주택산업은 개별 소비자들에게 초기 투자비용을 제외하고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유지비용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기 침체시대에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가정경제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www.guardian.co.uk/environment/2008/nov/18/green-building-energy-efficiency)

■독 일

17. 500억 유로 규모의 15가지 경기부양책 발표

- 독일정부는 2008년 11월, 향후 2년간에 걸쳐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500억 유로 규모의 포괄적인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자동차 업계의 안정을 위해 2009년 6월까지 구입하는 새 자동차에 대해 1년 간 자동차 세금을 면제하고, 자동차 운행의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최고 2년까지 세금을 면제함.
- 개인의 주택 수리비용에 대해 20%까지 세금을 공제함.
-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낙후주택 재개발을 지원함.
- 노인 근로자와 직업교육이 미비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보호책으로 직업과 병행된 재교육을 실시함.
- 1000곳의 직업소개소를 추가로 설치함.
- 특정계절에만 일할 수 있는 노동자의 임금보상을 12~18개월로 연장함.
- 인프라 미비 지역의 시설에 투자함.
- 교통부문(철도의 소음방지, 국도의 보수와 건설, 운하와 수로)에 20억 유로를 투자함.
- 지역경제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함.
- 기업이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150억 유로 규모의 은행 지원금을 마련함.
- 자동차 기업 지원을 위해 이산화탄소 감소에 대한 규정을 임시적으로 제외하고, 몇 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함.
- 현대적인 자동차 기술 개발과 혁신적 기업에 대해 지원함.
- 기업의 새 기계와 운송장비의 구입에 대해 2년간의 25% 세금을 공제함.
- 중소기업을 위해 점차적으로 세금을 공제함.

(www.heute.de/ZDFheute/inhalt/30/0,3672,7493054,00.html)

■ 벨기에

18. 私경제를 위한 경기부양 프로그램

- 벨기에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하, 에너지 비용 축소, 연 250유로까지의 임금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 20억 유로 규모의 '私경제를 위한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2008년 12월 발표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각 가정의 전기와 가스 요금을 약 30유로 인하
 - 일정시기 동안 부가가치세 인하 시행. 주택건설 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현재 21%에서 6%로 인하
 -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주택의 보온 보수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
 - 근로자를 위한 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이 납입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함.
 - 공공기관의 신속한 결제
 - 경기 활성화를 위해 철도와 공공업무에 지속적인 투자 계획
- (www.deredactie.be/cm/de.redactie.deutsch/nachrichten/1.433289)

■스페인

19. 일자리 창출 위해 110억 유로의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발표

- 스페인 정부는 2008년 11월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만 110억 유로의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발표함.
 - 이에 앞서 2008년 4월, 380억 유로의 경기부양 조치를 발표함.
 - 100억 유로를 2008년의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하고, 80억 유로를 2009년 경제를 위해 사용하며, 60억 유로를 세금공제를 통해 세금납부자에게 돌려 주며, 2009년에는 재산세를 폐지하는 것임.
 - 이번에 발표한 경기부양 프로그램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조치임.
 - 인프라 시설 프로젝트에 특별히 지원함으로써 2009년에 3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계획임.
 - 스페인의 실업률은 현재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 높은 상태라, 이번 경기부양책의 규모로도 스페인의 경기 침체를 막기에 충분치 않다는 입장임.

(www.fuldaerzeitung.de/newsroom/politik/zentral/politik/deutschland/art667,749642)

(www.tagesschau.de/wirtschaft/konjunkturprogramme102.html)

■ 이탈리아

20. EU의 지원금을 받아 경기부양 프로그램 의결

○ 이탈리아 의회는 2008년 11월, 향후 2년간의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의결하면서, 그 규모는 800억 유로에 이른다고 발표함.

- 필요 예산의 절반 정도는 유럽연합의 지원금을 통해 조달됨.
 - 이탈리아 정부는 120억 유로를 일단 자국 내 은행에 지원해 무엇보다 은행의 신용을 안전하게 확보하기로 함.
 - 인프라 시설 투자에 160억 유로 투입 계획
 - 연금생활자와 자녀가 많은 가정에 900유로까지 보조금 지원
 - 저소득 근로자에게 120유로 가치의 사회카드 지급
 -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세금감면 조치
 - 국가가 운영하는 전기와 가스요금, 도로교통요금을 당분간 인상하지 않음.

(www.fuldaerzeitung.de/newsroom/politik/zentral/politik/deutschland/art667,749642)

(www.tagesschau.de/wirtschaft/konjunkturprogramme102.html)

■ 네덜란드

21. 기업에는 세금혜택,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근로자에게 보상

○ 네덜란드는 60억 유로의 경기 부양책을 계획 중임.

- 20억 유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혜택으로, 세금공제를 가능한 빨리 도입할 예정임.
 - 건설 프로젝트와 인프라 시설 투자도 앞당겨 실시함.
 - 개인 가계를 임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억 유로를 마련함.
- 정부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경기침체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임. 줄어든 시간만큼 국가가 임금을 지원함.

(www.tagesschau.de/wirtschaft/konjunkturprogramme102.html)

■ 오스트리아

22. 중산층 지원하는 경기부양 프로그램

- 오스트리아 정부는 2008년 10월 약 10억 유로의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발표함. 주요내용은 중산층을 지원하는 것임.
 - 8000만 유로의 새로운 펀드기금을 마련해 기업의 기초자본을 지원·강화하고, 2012년까지 7억 유로를 철도에 투자함.
 - 오스트리아 정부는 현재 앞으로 2년간 경기부양을 위한 19억 유로를 추가 투자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임.
 - 주요내용은 세금혜택을 통한 투자 자극방안과 교육과 일자리 창출방안임.
- (www.tagesschau.de/wirtschaft/konjunkturprogramme102.html)

■ 폴란드

23. ‘발전과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부양 계획

- 폴란드 정부가 2008년 11월 발표한 2009년의 경기부양 프로그램의 규모는 240억 유로임.
 - 이 프로그램은 ‘발전과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임. 프로그램에 따르면, 지속적인 은행 보증과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도 제고, 에너지 부문 투자임.
 - 폴란드 재정부는 2009년의 경제성장률을 현재의 4,8%에서 3,7%로 낮춤. 240억 유로 규모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 부족이 커지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확신하고 있음.
 - 폴란드 경제는 여전히 성장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폴란드에서 국제 경제위의 영향력은 아직은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임.
- (www.goettinger-tageblatt.de/newsroom/politik/zentral/politik/deutschland/art667,749754)

■ 헝가리

24. 이제 겨우 국가부도 위기 벗어났지만 경기부양에 적극 노력

- 헝가리는 국제 통화기금과 유럽연합의 도움으로 국가부도 위기에서 벗어난 경우임. 헝가리 정부는 현재 지출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52억 유로의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제안함.
- 이것은 앞으로 2년간 유럽연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을 예상하고 마련한 프로그램임.
- 경기부양을 위한 가장 큰 투자 부문은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 보증금으로, 약 26억 유로를 투입하게 됨.

(www.tagesschau.de/wirtschaft/konjunkturprogramme102.html)

아 시 아

■ 도 쿄

25. ‘새로운 경제 대책(생활 대책)’ 발표

- 일본은 2008년 10월 ‘새로운 경제 대책(생활 대책)’을 발표하고, 어려운 경영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대책, 악화되는 고용 대책,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금융·경제 대책을 제시해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향후 조치방법에 따라 도쿄都의 재원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도쿄都는 내각총리 및 각부 장관 앞으로 긴급 제언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확실한 재원 조치
 - 도쿄都의 도로정비를 확실하게 완수할 수 있는 재원 확보
 - 지방 소비자 행정 활성화 기금을 상시적으로 운용하도록 권한 부여
 - 중소기업 등에 긴급 보증해주는 시청 및 구청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
 - 수도권 고속도로 요금 시책 및 3환상도로 정비 촉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11/20ibl300.htm)

26. 비정규직 30대를 정규직으로...‘넥스트 잡 테라스’ 오픈

- 도쿄都是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30대를 조기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8년 11월 ‘정사원 채용 정착 지원 사업’(넥스트 잡 테라스)을 실시함.
 - 직업 상담이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 인사담당 등 여러 전문가(잡 코디네이터)와 함께 취업부터 취업 후까지 지원함.
 - 잡 코디네이터는 직장에서의 불안감과 동료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 상담에도 응함.
 - 넥스트 잡 테라스를 통해 정사원으로 고용할 경우(6개월 이상), 고용자는 1인당 60만 엔(약 9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됨.
-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11/20ibk800.htm)

■요코하마

27. 긴급 경제대책 수립

- 요코하마市는 프로젝트팀을 설치해 기업과 시민의 생활 불안감 해소 대책을 검토해 왔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하기 위해 ‘요코하마市 긴급 경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008년 11월 현 단계에서 대처할 수 있는 대응책을 정리해 ‘긴급 경제대책’을 수립함.
 -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자금융통을 지원해 시민생활 불안에 대응함.
 - 중장기적으로는 시민생활에의 영향으로 불안감이 서서히 퍼질 것에 대응해 시민생활의 안심·안정화 대책을 강구함.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혁신, 경영기반 강화, 환경대책을 지원하는 동시에, 성장력 있는 신산업의 창출과 입지를 촉진하고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경제구조 전환을 도모함.
 - 구체적인 긴급 경제대책으로 중소기업에의 용자와 경영 상담 및 진단 사업이 있고, 시민에 있어서는 고용 촉진 및 시민상담 사업이 있음.
 - 2009년도 예산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시민생활 지원, 고용촉진책, 공공사업에 대한 대응 추진을 검토함.
- (www.city.yokohama.jp/ne/news/press/200811/20081105-037-6407.html)

■ 북 경

28. 내수 확대 위해 통관절차 융통성 있게 처리

- 북경市 관세청은 세계적 금융위기를 맞아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가공무역 기업 및 수출입 기업에 통관상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조치를 마련함.
 - 10개 항목에 걸친 조치는 통관비용을 대대적으로 낮춰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임.
 - 신용이 좋은 가공무역 기업에 대해 위험부담 담보금액을 감면해주기로 함.
 - 감면 수속절차를 밟고 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기업이 유효한 담보를 제출한다는 전제 아래 먼저 화물을 보내주고, 나중에 수속절차를 보완하도록 편리를 봐줄 계획임.
 - 기업이 통관절차를 밟을 때 내야 하는 보증금이나 저당금도 실질적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감면해 줄 예정임.
 - 북경市 관세청은 각종 행정심사를 빨리 처리해 기업의 통관 효율을 높여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약속함.
 - 이번 10개 항목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불법으로 수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함.
 - 지적재산권의 합리적 보호를 통해 권리를 보장하고, 자주적인 국내 브랜드 창조를 독려함.
 - 밀수행위를 엄격하게 감독함으로써 기업에 질서 있고 공평한 무역환경을 제공할 것임.

(zhengwu.beijing.gov.cn/gzdt/bmdt/t1005259.htm)

29. 중소기업 창업 투자지원 기금 마련

- 2008년 12월 북경市 발전기획위원회는 5개 창업투자회사와 양해각서를 맺음. 이는 북경市 중소기업 창업투자지원기금이 실질적인 투자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함.

- 이 기금은 중소기업 신용재담보社에 이어 중소기업에 다층 융자 서비스 체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
 - 이 기금은 중소기업 창업 초기에 자금을 지원해 줄 것임.
- 2008년 7월 북경市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기금 설립을 인가함. 이 기금은 창업 초창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형 벤처기업에 주주 융자방식으로 자본을 제공함.
 - 정부자금은 주식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재 기금 중 정부가 출자한 액수는 초기 3억 위안에서 8억 위안으로 확대됨.

(北京日报, 2008. 12. 8)

■ 상하이

30. 2009년 토지세 폐지

- 상하이市는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9년부터 토지사용세를 폐지하기로 함.
 - 국공유지의 토지사용권을 양도받은 기업은 2001년 5월 수정 발표한 ‘상하이市 토지사용권 양도방법’에 따라 입찰·경매·수의계약을 통해 토지 1㎡당 1위안씩 징수해 왔음.
 - 상하이市 토지사용세는 지역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뉘고 연간 과표기준은 등급에 따라 1㎡당 1.5~30위안으로 분류함. 외자기업도 납세대상으로 0.5~30위안을 납부하고 있음.
 - 토지사용세 징수대상은 상업용·공업용·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주택 등임.
 -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상하이市의 토지사용세 폐지는 향후 다른 도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view.news.qq.com/a/20071204/000034.htm)

31. 통관절차 간소화 20항목 발표

- 세계금융위기 한파로 상하이市의 대외무역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음. 2008년 11월 상하이 관세청 수출입액은 4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7% 하락하고, 중국 전체 하락폭보다도 0.7% 포인트 큰 폭으로 하락함.
- 이러한 하락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처음으로, 상하이市 관세청은 내수 활성화와 수출 진작을 위해 간소화 항목 20개를 발표함.
 - 대외수출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이번 조치는 통관의 간소화, 효율증진을 위한 세부적인 조치방안을 담고 있음.
 - 통관 시 필요한 담보 방식도 다양화해 자금난에 처한 중국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상하이市 관세청은 이번 조치와 함께 수출입 무역 감독관리의 정보화 작업, 체계적인 감독체계를 전제로 관세청의 업무 능률 향상은 물론 내수 활성화와 수출 진작에 앞장서고자 함.

(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serobject21ai311595.html)

32. 민생안정을 우선 고려한 1000억 위안 투자 계획

- 2008년 12월 상하이市는 2008년 850위안보다 18% 많은 1000억 위안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함. 이번 투자계획은 민생 안정과 사회복지 시설, 사회기반 시설 등을 위주로 편성됐으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민생 안정 지원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 市에서 계획한 600억 위안은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책 위주로 편성될 것이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세부논의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임.
 - 100억 위안의 별도 금액을 편성해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을 지원함.
- 市는 이를 통해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고, 3차 산업의 비중을 55%로 끌어 올리고자 함.

(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serobject21ai310742.html)

33. '3개년 취업지원계획'으로 실업 극복 의지

- 2008년 11월 상하이市는 실업극복을 위한 5대 방침을 발표함. 또한 2008년 한 해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전체 실업인구는 약 26만 명으로 실업률은 약 4.3%임.
- 이번에 발표한 5가지 방침은 '3개년 취업지원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안정 기여, 실업 가정·장애인 가정·저소득 농촌 가정의 취업지원, 사회보장금을 통한 체불임금 지원, 임금을 체불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농촌 잉여노동력 및 실업 귀농인에 대한 지원 등임.
- 상하이市는 이번 방침이 2009년 실업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www.xinhuanet.com/chinanews/2008)